

## 오픈뱅킹이 대세 ...사라지는 ATM



▲ 은행 모바일 뱅킹 화면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늘면서 현금자동인출기(ATM)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 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등의 금액은 지난 1월 14조8485억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나오면서 현금 이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 가능한 오픈뱅킹은 2019년 출시 후 최근까지 이용이 급증했다. 지난 1월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 금액은 60조1313억에 달했다. 출시 직후인 2019년 12월(2조2670억)보다 27배가량 늘었다.

이에 은행들은 CD와 ATM 설치 대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CD와 ATM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만7105대로, 5년 전인 2018년 6월 말(2만4832대)보다 31% 줄었다.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과 출장소는 3931개로 1년새 79곳이 사라졌다.

한편 이러한 추세로 인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작년 사교육비 27조 '또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27조 원을 넘어서며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날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곳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수는 1년 사이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 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조 2000억원)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 4000억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증가세는 고등학생에게서 두드러졌다. 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어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의대 쏠림과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

교습비등 계사표(48조 원)

교습 과정	교습과목	종원 (만명)	월교습시간 (분)	2023년		2022년	
				교습비 (조원)	교습비 (조원)	교습비 (조원)	교습비 (조원)
보습·논술	영양교육	130	420분	47,040억	47,040억	47,040억	47,040억
보습·논술	단과 (국영수사과(1))	90	720분	314,000억	314,000억	314,000억	314,000억
	단과 (국영수사과(2))	90	840분	388,800억	388,800억	388,800억	388,800억
보습·논술	단과 (국영수사과(3))	90	960분	418,200억	418,200억	418,200억	418,200억
	단과 (국영수사과(4))	90	660분	202,000억	202,000억	202,000억	202,000억
보습·논술	단과	90	660분	302,000억	302,000억	302,000억	302,000억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교육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 3000 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약 3.7배 많은 67만 1000원이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N수생' 학원비와 유아 영어학원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는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사교육비 지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 저소득층 음식값 줄었다... 식료품 물가 급등 원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과일 등 식료품값 급등에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 여전한데 앞으로는 쉽게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국립연구원에서 나왔다.



▲ 한 청과물 상점에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와 가계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1분위·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의 월평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이하 식료품) 지출액은 한해 전보다 1.6% 감소한 약 27만원이었다. 모든 분위에 속한 가구의 식료품 지출이 같은 기간 증가한 데다, 명목 가격 자체가 상승한 점음 염두에 두면 식료품

가격 급등 부담이 저소득 가구에 심각한 수준으로 작용했다는 걸 뜻한다.

특히 가구주가 취업하지 않은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은 5.9% 급감했다. 형편이 어려워 물수족 식료품 지출에 허리띠를 바짝 졸였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식료품 물가는 6.6% 급등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식료품 물가는 지난 1, 2월 각각 5.9%, 6.9%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경연은 "일조시간 부족, 생산비 증가, 농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한 탓에 과일 채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Kyung Sook Yu, D.D.S

##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